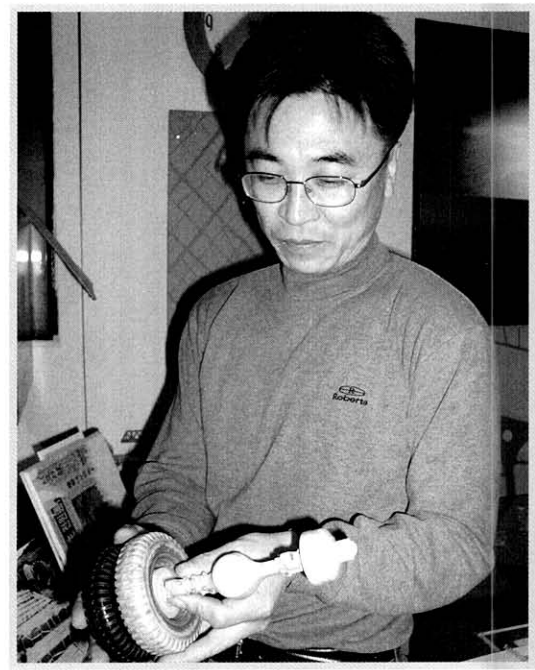
5.18모형 제작하는 김동선



'...그러나 난 언제부턴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어쩌다가 보니 작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최소한 그것만으로도 내가 건너온 그 강에 대하여, 그 뜨거운 불에 대하여 동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임철우의 '봄날' 서문 중에서-

김동선(41)씨는 80년의 광주, 5.18을 모형으로 복원하고 있다. 모형제작업체 포윈(Forwin)의 대표인 그가 5.18 모형작업을 시작한지는 96년이니까 약 7년쯤 되어 간다.

그와의 만남은 마포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였다. 건물 4층에 위치한 사무실 문을 열자 보이는 건 커다란 기계, 여기저기의 아크릴 수납장, 몇 대의 컴퓨터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분주한 젊은 직원들이었다.

안내받아 들어간 작업실 옆 그의 방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바로 80년 5월의 광주 도청 앞 모형이었다. 모형판에는 불탄 택시, 금남로에 줄이어 선 버스행렬, 헬리콥터, 바리케이트, 짚차 위의 시민군,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광주관광호텔, YWCA, 수협 도지부 건물... 80년의 광주가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가 바쁜 생업 틈틈이 5.18모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5.18을 기록하고 알려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내가 가진 재주로 5.18을 알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5.18을 겪지 못한 이들에게 제대로 알려내야 한다는 건 오래 전부터 생각이었습니다."

80년 5월의 그는 광주토박이로 스무 살의 재수생이었다. 군사쿠데타에 항의하는 집회가 잇따르던 그 시기에 그는 학원 창문 넘어 스크럼을 짜고 몰려가던 대학생 친구들의 모습을 부러워했다고 한다.

소속 없이 담배를 태우며 맴돌던 그는, 결국 손에 든 담배를 끄고 녹음기를 들게 된다. 5월 21일 광주시내를 내내 돌아다니면서 그는 테이프에 녹음을 하였다. 5.18의 광주를, 그 해 광주의 처절한 모습을 1시간짜리 테이프에 기록했다. 그 가혹한 참상을 남겨야 했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그 테이프는 이후 13년 동안 검정테이프에 돌돌 말려 시대가 변하길 기다렸고 이 테이프는 서울로 취직되어 올라와 결혼할 때까지 이대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해 예비고사를 마친 그는, 친구와 서울까지 자전거 여행을 계획했다. 자전거 여행길에서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무수한 질문을 받았다. "광주에 간첩이 많았다면서요?" "광주에 빨갱이 폭동이 일어났다면서요?"..... 이런 질문 앞에 그는 처절했던 광주를 말했다. 그 무수한 질문에 일일이 진실을 답하고 말해주다가 전라북도 정도를 벗어나면서 말하기를 포기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함에 지쳐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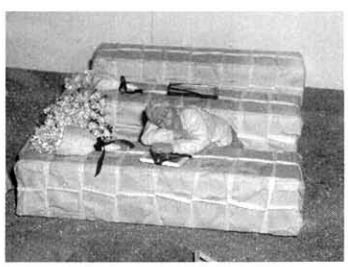
조선대 건축과로 진학하여 대학생활을 보내는 동안, 그는 운동권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대신 스스로를 남들 앞에서 돌멩이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빠지지 않고 함께 했던 '주변인' 이라고 했다.

'주변인'. 그는 마음의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이들, 앞서지는 않지만 기꺼이 뒤따를 수 있는 이들. 스스로를 주변인이라 하는 그는 주변인으로서 끊임없이 5.18을 알리고 해결하는데 함께 하려, 동참하려 하였을 것이다.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5.18문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기에 결국 타 지역 사람들이 정확한 5.18 광주를 모르면서 지겹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5.18을 너무나 조금씩만 해결하려했기 때문입니다. 5.18을 지겹게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려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가 겪은 5.18을 모형제작기술을 통해 재현하게 만든다. 자신이 겪은 5.18을 모형으로 보여주자고 결심하고 96년도부터 하나씩 시작, 시민군이 타던 장갑차, 진압군의 총, 시신으로 넘쳐나던 상무관... 이렇게 단품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한다.

사실 그 즈음의 그는 건축을 전공하고 29살까지



살아온 광주를 떠나 서울의 설계사무소에 취직하였다가 설계에서 모형으로 자신의 길을 바꾼 참이었다. 그가 하는 일은 설계도면에 따라 축소모형을 만드는 일이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을 내고나서 바로 이렇게 5.18을 재현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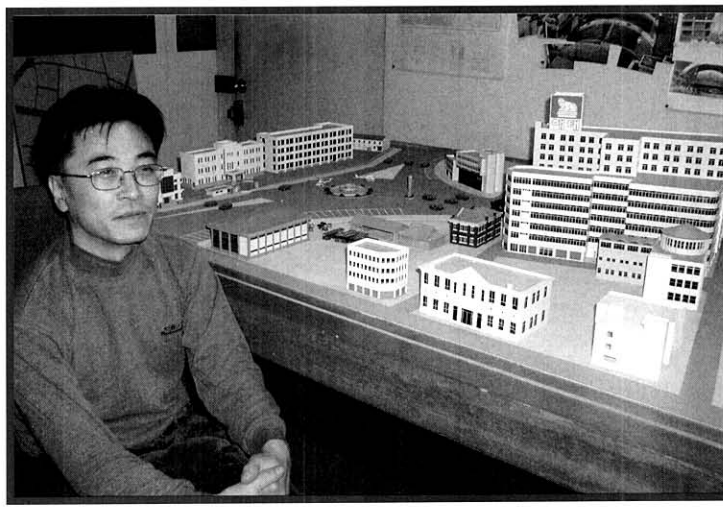
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방안을 채우고 있는 도청 앞 모형을 만드는 일에만 3년이 걸리는 등, 생업도 함께 해야하다보니 겨울 비수기에 주로 바쁘게 만들어야 했고 드는 돈도 만만치 않았다. 더구나 처음엔 1/10 크기의 모형으로 만들어 많은 예산과 공간부족을 견딜 수 없었다. 현재는 1/80이나 1/150 크기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사무실 입구에서 보았던 커다란 컴퓨터조각기도 작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무리해서 장만한 것이라고 한다. 가족들이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녹녹치 않은 이 일은 작년에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서 몇 군데 언론에 인터뷰를 받는 등 조금 알려지자 이렇게 단품들이 아닌 보다 정리된 것들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를 지금에 와서 제대로 재현해 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당시 건물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무엇보다 건물들 설계도면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계도면 등의 자료만 갖춰져 있다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될 일인데 말이죠"

도청 앞 사거리만 해도 YWCA 건물이 식당으로 바뀌는 등 사라진 건물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엔 도청 민원실 옆 보이스카웃연맹 건물 재현을 위해 현지답사를 했는데 이 건물 역시 설계도가 없어 새로 설계도까지 그려야 해 약 350여장의 사진을 찍어왔다고 한다. 그나마 관청건물이나 몇몇 상징적 건물의 경우는 사라져 버린 건물에 비해서 나은 편인데 민간건물들은 당시 모습을 예측하기 어렵게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광주토박이인 자신의 기억부터 당시 사진이나 비디오 자료 등에 의존하여야만 한다.

첫 마디부터 그러했듯 '모든 것이 자료찾기' 라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건물에 관한 자료도 자료가치를 인식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다시 말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시대상황에 맞게 세세한 것까지 사료를 수집하길 바랍니다. 특히 건물에 관련된 자료들이 소실되지 않고 가치있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의 망월동 5.18묘역 모형은 기념사업회의 사료전시회 때 함께 전시되기도 하였다.

그가 모형이란 영역에서 5.18을 이야기 하듯, 5.18은 영화로, 소설로, 시로 많은 영역

에서 다루고 승화되었다. 가슴에 와 닿던 것이 있더냐는 물음에 그는 임철우의 장편소설 '봄날'을 꼽았다. '봄날'은 5.18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번째 장편소설이다. 그는 다섯 권짜리 이 책을 보면서 무수히 울고 반성했다고 한다. 이렇게 살아남아 각 분야에서 5.18을 말하고 알리고 있는데 자신은 무엇인가 하는 채찍이 되었다는 것이다.

살아있음이 다행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그 당시를, 진압 당일 새벽 여학생의 목소리 잊지 못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잊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다. 삶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잊고 싶은 것이 무수한 현실 속에 결국은 기억해내고 이를 진실로 공유하고야 마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 5.18의 광주.

5.18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는 광주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워진 소명일 것이다. 그 소명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그는 나름의 숙제를 가지고 있다.

"민주화모형공원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이런 꿈을 말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민주화모형공원이란 세계와 한국의 민주화역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민주화 분기점이 된 인물이나 장소 등을 모형으로 제작하고 재현해낸 곳이죠. 5.18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계의 민주화를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이구요. 세계 유명 모형공원들은 유명 건축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니 민주화모형공원을 우리가 만든다면 교육과 관광 상품 가치도 동시에 가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가 만들 민주화모형공원에는 3.15도, 4.19도, 5.18도, 6.10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반독재투쟁도, 대만의 학생운동도, 유럽의 6.8혁명도 자리잡게 될 것이다. 잔인하면 잔인한대로 슬프면 슬픈대로 그의 고집처럼 철저하게 사실적인 모형들로 되살아나 현장의 감동을 그대로 되살려 줄 것이다.

그는 '주변인'이란 마음의 뜻을 같이하는 이라고 했다. 이런 그의 꿈에 내 마음이 통했으니 나 또한 '주변인'이 되어 인터뷰를 마친 셈이다. 민주화운동의 곁에서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끼면서 주변을 자처해 주는 사람이 많다면 참으로 든든할 것이다.